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10월 1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수출입과장 조영태(2110-5331), 이디도 사무관(2110-5335)

향후 ASEAN, 미국 수출시장 지속 확대될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대 주력 수출시장 변화 추이 분석 -

< 주력 수출시장별 수출비중 변화 및 주요 원인 >

◇ 중국의 수출비중이 2010년 이후 감소세인데 반해 ASEAN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에 따라 수출비중 꾸준히 증가

◇ 미국은 한·미 FTA 효과 등으로 최근 반등추세이며 EU는 재정위기로 수출비중 하락, 일본은 대지진 이후 수출비중 상승

지역	수출비중(%)						주요 원인
	'08	'09	'10	'11	'12	평가	
중국	21.7	23.9	25.1	24.2	23.6	최근 감소세	·對中투자 비중 감소, 진출기업 현지화 등
ASEAN	11.7	11.3	11.4	12.9	14.0	지속 증가세	·對ASEAN 투자 증가로 자본재 수출 확대
미국	11.0	10.4	10.7	10.1	10.9	최근 반등	·한-미 FTA 효과, 자동차 등 수출 증가
EU	13.8	12.8	11.5	10.0	9.3	지속 감소세	·재정위기 인한 경기 침체, 선박 수출 급감
일본	6.7	6.0	6.0	7.1	7.1	최근 반등	·대지진 복구수요 및 석유제품 수출 증가

1. 최근 수출입 동향 및 검토 배경

□ **(수출입 동향)** '08년 이후 우리 수출은 '09년을 제외하고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11년 무역 1조불 달성하였으나 '12년에는 감소세

< 최근 5년간 수출입 실적(단위: 억불, 전년동기대비 %) >

	2008		2009		2010		2011		2012.1~9	
수출	4,220	(13.6)	3,635	(△13.9)	4,664	(28.3)	5,552	(19.0)	4,084	(△1.5)
수입	4,353	(22.0)	3,231	(△25.8)	4,252	(31.6)	5,244	(23.3)	3,896	(△0.9)
교역	8,573	(17.7)	6,866	(△19.9)	8,916	(29.9)	10,796	(21.1)	7,980	(△1.2)
무역수지	△133	-	404	-	412	-	308	-	188	-

○ 최근 지역별로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EU 및 중국에 대한 수출은 감소세가 뚜렷한 반면 미국·ASEAN에 대한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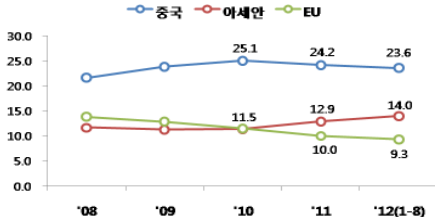
□ **(검토 배경)** 주요 5대 지역별(중국, 일본, ASEAN, 미국, EU)별 수출입 증감이 추세적인지 검토 필요

○ 5대 지역별 수출입 추이의 변화를 분석하고 원인 파악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지역별 무역구조를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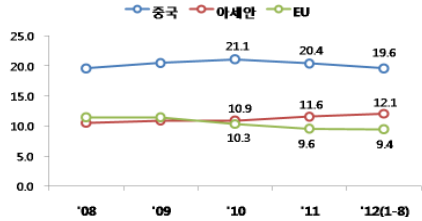
2. 5대 주력시장별 수출입 추이

□ **(중국·ASEAN·EU)** 중국·EU에 대한 수출 및 교역비중은 하락세를 시현중이나, 對ASEAN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

<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



< 지역별 교역비중 추이(%) >



○ EU는 '08년 이후, 중국은 '10년 이후 수출 및 교역 비중이 하락 추세

○ ASEAN은 '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 및 교역 비중이 확대되면서 '10년 이후 EU를 제치고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국으로 부상

- 주요 지역별 실적이 부진한 올해에도 5대 지역중 최고 교역증가율 시현

* 지역별 교역증가율('12. 1~8월, 전년동기대비 %) : (ASEAN) 4.5 (미국) 4.1 (일본) △4.1 (중국) △4.3 (EU)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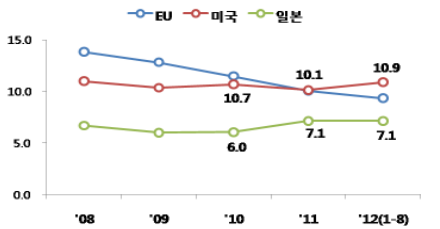
□ **(미국·일본)** 미국은 금년 수출 및 교역비중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EU와 일본을 제치고 제3위 교역대상국으로 재부상

○ 일본은 수출 비중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 對日 수입 비중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교역비중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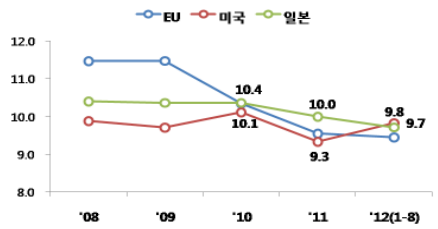
- 對日 수입은 '12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둔화세 확연

* 對日 수입 비중(%) : ('08) 14.0 ('09) 15.3 ('10) 15.1 ('11) 13.0 ('12.1~8월) 12.4
* 對日 수입 증가율(%) : ('08) 8.4 ('09) △18.9 ('10) 30.1 ('11) 6.3 ('12.1~8월) △6.7

<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



< 지역별 교역비중 추이(%) >



3. 원인 분석

□ **(중국·ASEAN)** 최근 對中 투자 비중 하락, 對ASEAN 투자 증가가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 하락 및 ASEAN 수출비중 증가의 주요 원인

○ '08년 이후 對中 투자가 감소하면서 對ASEAN 해외투자가 對中 투자의 비중을 추월('11년 전체 해외투자의 13.5%)

< 최근 對中·ASEAN 해외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6
총금액	30,464	37,023	31,309	34,812	45,267	21,118
중국	7,329	4,905	2,761	4,422	4,881	2,669
(비중)	(24.1)	(13.2)	(8.8)	(12.7)	(10.8)	(12.6)
ASEAN	6,511	5,947	6,276	7,158	6,115	2,619
(비중)	(21.4)	(16.1)	(20.0)	(20.6)	(13.5)	(12.4)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이에 따라 對中 부품소재 및 자본재 수출은 최근 둔화세인데 비해 ASEAN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를 지속

< 최근 對中·ASEAN 부품소재, 자본재 수출 동향 (단위 : 억불, 전년동기대비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8
부품 소재	중국	504 (17.3)	551 (9.3)	613 (11.4)	832 (35.6)	882 (6.0)	555 (△5.4)
	ASEAN	189 (9.4)	210 (11.3)	180 (△14.7)	223 (31.9)	227 (1.9)	208 (6.0)
자본재	중국	448 (24.9)	480 (7.2)	496 (3.3)	709 (43.0)	760 (7.2)	499 (0.0)
	ASEAN	188 (33.2)	203 (7.8)	193 (△24.3)	223 (24.7)	270 (20.8)	196 (12.4)

○ 이외에도 선진국 경기 둔화로 인한 중국의 수출 위축,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화 등에 따라 對中 수출 비중 감소

- 전년 동기 20% 이상 증가했던 중국의 수출이 최근 한자리수로 급격히 위축되면서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에 악영향

* 중국 수출 실적 : ('11.1~8월) 12,226억불(23.6%↑) → ('12.1~8월) 13,091억불(7.1%↑)

- 중국 진출 기업의 한국으로부터의 조달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현지 조달비중은 증가하고 있어 중간재, 자본재 등 수출 둔화

* 중국 진출 현지법인 현지매입 비중(%) : ('08) 52.0 → ('09) 59.4 → ('10) 62.4

○ 반면 ASEAN 지역의 소득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이 증가하면서 對ASEAN 수출비중은 지속 상승

* 對ASEAN 소비재 수출증가율(%) : ('08) 18.7 ('09) 6.7 ('10) 23.0 ('11) 20.8 ('12) 2.7

□ **(미국)** '12.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수혜 품목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속 하락하던 對美 수출 비중 확대

○ FTA 수혜 품목의 수출은 발효 이후 4개월 동안('12. 3~6월) 두자릿수 증가하면서 '12년 對美 수출비중 확대를 견인

* 한-미 FTA 수혜품목 美 수입증가율('12.3~6월, %, 무역협회) : (對한국) 13.5 (對세계) 2.8

○ 특히 자동차,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주력품목 수출이 큰 폭 증가세

* 對美 수출증가율(1~8월 누계, %) : (자동차) 34.0 (일반기계) 30.8 (철강) 22.2 (자동차부품) 17.5 (섬유류) 8.3 (컴퓨터) 8.2 (가전) 4.4

□ **(EU)**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지속과 최대 수출품목인 선박 수출 감소, 주력품목 해외생산 확대에 따라 對EU 수출비중은 하락

○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가전제품 등 소비재와 관련 중간재(반도체 등) 수출 동반 위축

* EURO 소비자신뢰지수 : ('10.6) 4.9 ('10.12) −11.4 ('11.6) −10.0 ('11.12) −21.3 ('12.9) −25.9

○ 특히 '11년 기준 對EU 수출의 22.5%를 차지하는 선박 수출이 급감하면서 對EU 수출 비중 급락('11 : 10.0 → '12 : 9.3%)

* 對EU 수출증가율(1~8월 누계, %) : (선박류) △39.1 (반도체) △38.8 (철강) △22.6 (무선통신기기) △21.0 (가전) △14.9 (자동차) △9.5 (석유화학) △3.5

- 또한 對EU 수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의 해외생산 확대에 따라 해당품목 국내 통관기준 수출이 감소

* 스마트폰 해외생산비중(%) : ('11.1Q) 27.3 ('12.1Q) 78.1 ('12.2Q) 79.6

□ **(일본)** 대지진 이후 수출비중이 상승하였으나 최근 일본의 對한국 투자 증가 등에 따른 일본 부품소재 의존도 감소로 수입 및 교역 비중 축소

○ 대지진 이후 석유제품('11년 139%↑), 철강(36.5%), 일반기계(24.5%) 등 수출 증가로 '11년 對日 수출 비중 큰 폭 확대

○ 반면 對日 수입 비중은 최근 일본 기업의 對韓 투자 증가에 따른 한국내 생산 확대와 국내 기업의 수입선 전환 노력에 따라 감소세

* 日 부품소재 기업 중심으로 對韓투자 확대 : '12. 9월 현재 33.0억불, 전년대비 130%↑

* 소재부품 수입 비중 추이('10→'11→'12.1~3Q,%) : 일본(25.2→23.6→22.9), 유럽(14.6→14.8→15.8), 미국(10.9→10.7→11.4)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향후 전망)** 對ASEAN·미국 교역비중 확대, 일본·EU에 대한 교역비중 축소 추이는 향후 지속될 전망

○ 임금 상승 등 중국 내 경영환경 악화로 투자선이 중국에서 동남아로 전환되면서 對ASEAN 부품소재·자본재 수출 증가 전망

- 일부 국내 및 해외 기업들의 脫중국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對中 부품소재·자본재 수출은 정체 예상

○ EU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美 경기 회복세와 한-미 FTA 효과에 따라 對美 수출·교역비중은 확대 예상

* IMF('12.10)는 '12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0.2%, '13년 0.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미국은 '12년 2.2%, '13년 2.1%로 2%대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엔고 등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日 기업들의 해외투자도 증가하고 있어 對日 부품소재 수입 감소와 교역 비중 축소 예상

□ **(시사점)** 향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ASEAN,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동시에 중국, EU, 일본 등에 대한 수출전략 전환 필요

○ **(중국)** 가공무역 위주 수출구조를 탈피하고 한류 활용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재 및 내수용 자본재·부품소재 수출 확대

○ **(ASEAN)** 성장성이 높은 동남아 주요국과의 경제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자본재 시장을 확보하고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재시장 적극 공략

○ **(미국)** 섬유, 자동차부품 등 FTA 수혜업종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제고로 미국 시장 공략

○ **(EU)** 한-EU FTA의 가격인하 효과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고품질 첨단 제품 중심으로 수출 확대

○ **(일본)** 일본 對韓투자 기업들의 부품소재 역수출 확대 및 한류를 활용한 소비재 등 틈새시장 개척이 필요